

아이돌, 영화, 드라마로 시작된 'K' 열풍이 식을 줄 모른다. 우리나라 식문화를 대표하는 김치와 불고기를 비롯해 라면, 만두, 과자 등으로 오히려 그 영역을 확장하는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K-푸드 수출액은 역사상 최고치인 13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처럼 좋은 분위기에 힘입어 올해 수출 목표액을 155억~160억 달러로 잡고, 7천70억 원 규모의 수출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식품제조 대기업 대표가 출석해 사과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해당 기업 공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여론이 나빠지자 공개된 장소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베이글 성지로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발생한 20대 직원의 과로사도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80시간을 일하고, 사망 전날에는 식사도 거른 채 15시간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식품산업 노동자들은 많은 기계와 장비를 사용하고, 식재료 취급에 따른 고온 및 저온, 중량물 취급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 생산원가에 대한 부담도 큰 산업이라 투자 부족으로 인한 낙후 시설과 노동자 처우 및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식품산업은 지금 K-푸드의 세계적 인기로 힘입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K-푸드의 성공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먹거리를 완성하는 건강한 노동환경에 달려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산업 노동자의 건강



Contents

FEBRUARY
2026

Vol. 454

통권 454호(2026년 2월)
등록일 2015년 1월 13일
등록번호 청주 라00059
간별 월간
발행인 이승철
발행일 2026년 2월 1일
발행처 대한산업보건협회
전화 043-540-8500
기획·디자인 문화공간(02-2266-1897)

월간 <K-산업보건>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며, 협회 홈페이지(www.kiha21.or.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사항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담긴 내용은 월간 <K-산업보건>이나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대한산업보건 협회 대외홍보국(☎043-540-8432~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SSUE PAPER⁺ 식품산업 노동자의 현실과 개선 방안

- 04 식품제조업의 현실과 발전 방안
- 08 빵 만드는 사람들의 노동과 건강
- 12 식품제조업 노동자의 산업재해
- 14 이슈체크
안전보건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제언
- 18 꼭 짚어 말하자면
특수고용직 건강진단, '시혜'에서 '권리'로
- 20 트렌드 읽기
2026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PEOPLE & INSIGHT⁺

- 22 현장을 바꾸다
롯데웰푸드 비상안전부문
- 26 국외 산업보건 동향
영국산업안전보건청(HSE) 제빵업 직업성
천식 예방 핵심 메시지

HEALTH & TOGETHER⁺

- 28 그 사람의 직업병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살펴보는
식당 자영업자의 현실
- 30 산업보건 Q&A
개인정보,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 32 천천히 걷기
단팥빵 그리운 날엔 국내 베이커리 1호 이상당
- 36 용어 바로알기
노동시간의 새로운 기준 주 4.5일제 이모저모
- 38 KIHA Cartoon
제빵노동자의 작업 환경

KIHA NEWS⁺

- 40 KIHA NEWS
- 50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전보건 컨설팅
- 52 독자마당